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6~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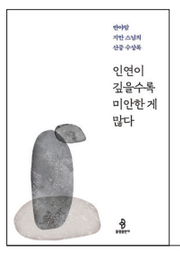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필사책	정운	유노북스
2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원택	장경각
3	불교 한자 입문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4	신심명 강설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5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6	화엄경 약찬게	용학	담앤북스
7	금강경(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9	마음으로 그리는 극락세계	무비감수	한영출판사
10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
2	경허선사어록	경허/무이 거부 역주	무이정사
3	초기불교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김성구	운주사
5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다르마와 DNA	디 덴버	운주사
7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8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9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행복에는 독립성이 없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반야암 산책길서 길어 올린 수상
맑은 찻물 같은 문장이 주는 여운
"행복은 오직 마음 사이에 깃든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우리는 스승에게 '큰 가르침'을 기대한다. 삶을 단숨에 바꿀 조언, 죽비를 내려치는 듯한 깨달음 같은 것들이다. 그 대상이 우리 시대의 대강백, 지안 스님이라면 기대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산수(傘數, 80세)를 맞아 스님이 건네는 가르침은 의외로 짧고 단순하다. "행복에는 독립성이 없다."

"남은 불행한데 나만 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깃든다."

행복은 고립된 상태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뜻이다. 스님이 말하는 행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다.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는 지난 10여 년간 써온 수필을 모은 수상록이다. 통도사 반야암에서 반세기 넘게 교학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러온 스님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당을 드나들고 오솔길을 거니는" 삶에서 "사색의 호주머니에 이런저런 생각을 담고 구름다리를 건너듯 상념의 공간을 오간" 흔적이다.



우리 시대 대강백 지안 스님이 10년 만에 펴낸 수상록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사진은 통도사 반야암 숲길을 산책하는 지안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스님의 하루는 산책으로 시작되고 산책으로 마무리된다. 처소 오른쪽엔 오죽림(烏竹林)이 있고 왼쪽엔 맑은 계곡이 있다.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산의 이마가 보이고 꼭대기에 일출이 닿는 기미가 보인다. 정갈하게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며 '물과의 악수'를 나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각에 정신이 맑게 깨어난다. 스님은 이 산책을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계절의 흐름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인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문득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결을 담담히 포착한다. 숲길을 걷고, 비를 맞고, 구름을 바라보는 장면들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본질을 비춘다. 해가 뜨면 눈부시게 행복하고, 별이 뜨면 조용히 반짝이는 삶.

책의 중심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고백이 놓여 있다.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러나 스님은 그 확신이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관계는 경쟁과 설득의 장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자리로 바뀐다.

특히 인연에 대한 통찰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편안함이 커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스님은 오히려 '미안함'이 앞선다고 말한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마음. 이는 관계가 부담스러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표다. 이처럼 스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감정의 결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거룩한 후퇴'라는 개념도 인상적이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에, 스님은 멈춤과 물러남의 가치를 말한다.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이며, 나이가 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라는 통찰이다.

스님의 사색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문장들은 맑은 차와 같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책을 덮고 난 뒤에도 오래 여운을 남긴다.

꽃으로 피어난 수행의 언어



꽃이 아름다운 이유
안양규 시집
올리브그린
1만5000원

불교학자 안양규 교수 첫 시집
학문·수행 녹아든 시 100여 편

명상심리상담 전문가인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어린 시절 시인을 꿈꿨다.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인생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시(詩)"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를 공부하며 여러 편의 시를 썼지만, 영국과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점차 시와 멀어졌다.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 다시 시를 마주하게 됐다. 그렇게 쓴 200여 편의 시 중 100여 편을 선별해 첫 시집 〈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상재했다.

시집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붉은 눈을 부릅뜬 / 기다란 쇠구렁이"('지하철' 중에서)를 타고 출근하다 보면 "105동 아파트 옆 구리에서 / 하얀 연기가 연거푸 / 뿜어져 나오고"('겨울 도시의 아침 풍경' 중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문득 "나도 꽤 긴 시간 / 이 동네에 살다 보니 / 이제 이 동네 주민이 되어 / 불평 없이 그럭저럭 잘 먹고 지내"고 있다며 위안한다.

2부는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간다. 자연은 그 자체로 설법이며, 시인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길어 올린다. 시인은 "자연이 나에게 글을 쓰게끔 했다"고 말한다.

3부에서는 시선이 '나'를 향한다. 머리를 감다가 빠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노화를 체감하고,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허무를 느끼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찾는다.

4부는 시인이 그간 간절히 추구했던 깨달음과 성불의 경지를 보여준다. 시인은 "깨달음은 / 모든 것을 포용하는 침묵이고 / 끝없이 베푸는 사랑"('깨달으면' 중에서)이고, "단단하게 얼었던 / 마음이 / 사랑의 입김으로 / 부드럽게 풀리는 것"('성불' 중에서)이라고 노래한다.

이강옥 영남대 명예교수는 "평생 갈고닦은 지혜와 수행을 시라는 자비의 그릇에 담아 올리는 공양물"이라는 시평을 남겼다. 여수령 기자

여말선초, '전환'의 시대



여말선초 고승 나옹과 무학
황인규 지음
민족사
4만5000원

'권승(權勝)' 덧씌워진 무학 대사
스승 나옹·문도와 불교 혁신

여말선초는 흔히 '불교의 쇠퇴기'로 요약된다. 이 익숙한 서술에서 불교는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난 종교로 이해되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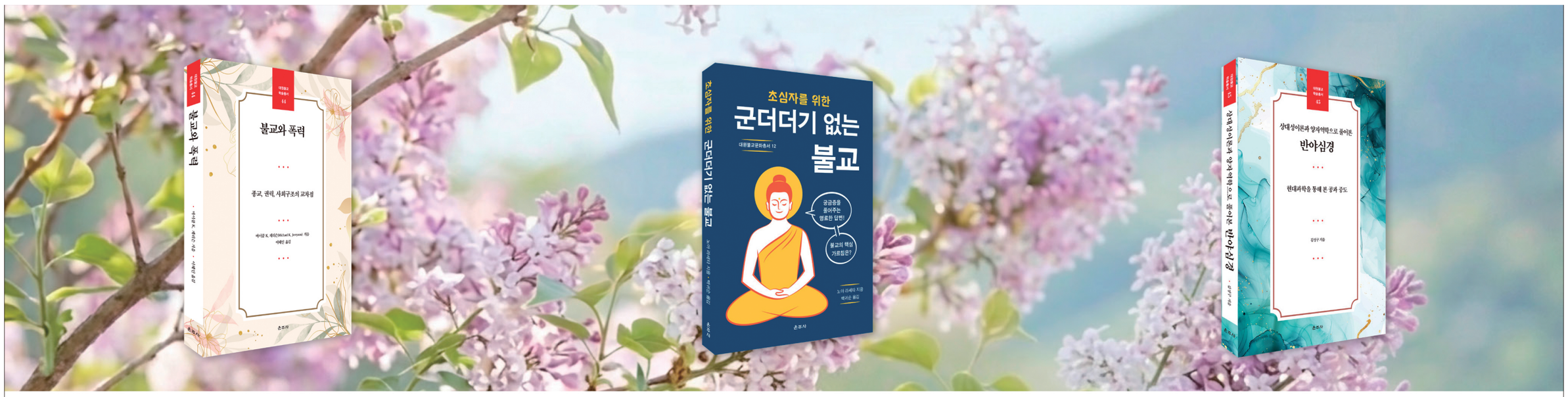
저자는 무학 대사에 관한 교양서 출간을 의뢰받고 자료 조사를 시작하다,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잘못 알려지거나 야사에 불과하다는 데 '황당함'을 느꼈다. 이후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사를 연구하며 무학 대사와 그의 스승 나옹 혜근 선사가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음을 밝혀냈다.

〈여말선초 고승 나옹과 무학〉은 풍수 도참가, 혹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권승'의 이미지로 덧씌워진 무학 대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복원한다. 이 과정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옹 선사로 확장된다. 무학의 스승이자 고려 말 불교계를 이끈 핵심 인물인 나옹은 지공으로 이어지는 법맥 위에 서 있다. 이른바 '삼화상'으로 존숭되는 이 계보는 여말선초 불교의 사상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축이다.

특히 나옹과 그의 문도들은 회암사 중창을 비롯해 오대산과 용문산 일대에서 불교 중흥을 도모하며 지역 기반을 확장했다. 이는 불교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 재편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말선초를 '단절'이 아닌 '전환'의 시대로 재정의한다. 억불 정책 속에서도 수행과 교화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실천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저자는 "나옹과 무학, 그들의 문도들은 선풍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혁신하고자 했다"며 "특히 이들은 서산 일대와 고창 선운사 등을 중심으로 불교 흥법을 펼쳤다는 사실이 '선운사 사적기문'으로 처음 밝혀지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는 과연 비폭력의 종교인가?
불교와 폭력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고문,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어떻게 공생해 왔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현장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정교한 학술적 시도!
마이클 K. 제리슨 지음, 이혜인 옮김/신국판/376쪽/값 2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를 위한 군더더기 없는 불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복잡한 교리 대신 명료한 설명과 실제적인 예시로 불교의 핵심을 안내하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실천서!
노아 라셰타 지음, 백귀순 옮김/국판변형/184쪽/값 15,000원

현대과학을 통해 본 공과 중도!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해 '공'과 '중도'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반야심경』의 참뜻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김성구 지음/신국판/328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